
현실요법을 활용한 대학생 마음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하태현*, 백현기**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Mind Healing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Reality Therapy

Tai-Hyun Ha*, Hyuen-Ki Baek**

요약 본 연구는 심각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불안과 우울 문제 해소와 예방을 위하여 현실요법을 활용한 대학생 마음치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다. 그리고 연구에서 적용한 현실요법은 Woo(1994)[14]가 개발한 현실요법프로그램을 대학생들에 맞게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프로그램소개 및 자기소개, 다섯 가지 마음 욕구 이해하기, 대화걸림돌 확인하기, 효율적 의사 소통기법 배우기, 타인에 대한 비합리적 기대 조절하기, 마음차이 인정하기, 선택과 책임의 문제, 마음 성장하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 1회씩 총 10주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에 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의 참가동기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정신건강을 연구 변인으로 설정한 모형으로 검증을 하였다. 적용결과 참가동기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는 직접효과보다 프로그램 만족을 매개로 했을 때의 간접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참가를 유도하는 동기부여로 만족감을 줄 수 없고,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정신건강에 느끼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주제어 : 현실요법, 마음치유, 정신건강, 효율적 의사 소통기법, 선택과 책임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developing Mind Healing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whose anxiety and depression are getting serious. Reality therapy was experimented total 10 times(one time per week), which was the revision and supplement of Woo(1994)'s reality therapy program. It consists of introducing program and self, understanding 5 mind desires, identifying obstacles of conversation, learning efficient communication skills, controlling irrational expectation of others, recognizing mind gap, problems of choice and responsibility, nurturing mind, etc. The effectiveness of this program was verified through a model whose research variants were participation motivation,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Direct effects of participation motivation,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were less satisfactory than indirect effects of the time when program satisfaction is a variant. It is concluded that mental health of participants is getting better when more satisfactory program should be provided, rather than motivation of simple participation.

Key Words : Reality therapy, Mind healing, Mental health, Efficient communication skill, Problems and responsibility

1. 서론

국내 청소년 및 대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는 해를 거듭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우울감은 2005년 29.9%에서 2007

년 41.3%로, 자살충동은 2005년 22.6%에서 2007년 23.7%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국 청소년의 우울감 28.5%, 자살률 6.9%보다 높은 수준이다[16]. 2010년 한 해 동안 자살로 사망한 대학생의 수는 200

* 이 논문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단의 지원을 받은 논문임

*우석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원광대학교 마음인문연구소 HK교수(교신저자)

논문접수: 2012년 12월 1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12월 20일

명이 넘고[20], 최근 유명대학 학생들의 자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은 자료들은 대학생의 대학생활 부적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활의 경우 사회진출을 바로 앞둔 시기라는 점에서 다른 시기보다 특히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이 시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의 직업선택과 생활의 질에 있어서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대학생들은 갈수록 불안해지며 우울함을 안고 있다. 대학생들은 갓 성인이 된과 동시에 수많은 고민들에 직면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은 대학생들을 불안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다. 현실적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대학에 들어온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미 전공이 결정되고 난 후에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갈피를 못잡고 헤매게 된다. 그러나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잠시, 취업의 관문 앞에서 학생

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른채 스펙 쌓기와 학점 받는 것에 급급하게 된다. 이러한 원인들이 청소년기와 대학시절에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는 대부분 성인기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9].

과거에는 정신건강의 문제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정신적 질환 내지 이상심리가 다른 사람, 사회나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점차 관심이 미치게 되었고 최근에는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족체제, 사회 심리적 환경, 또는 사회문화적 체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의 전 사회적 망을 통해서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이상심리를 예방하고 치료하려는 경향이 점차로 강화되고 있다[1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실요법을 활용한 대학생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실요법을 적용한 연구들이 시도되기 시작하였다[7][4]. 현실요법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더 효율적으로 통제하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욕구를 더 잘 만족시키도록 하는

〈표 1〉 프로그램의 진행계획표

회기	제목	목표 및 내용
1	프로그램소개 및 자기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를 소개함으로써 참가자간의 이해 및 신뢰감의 발달을 돕는다 • 질문지를 통해 마음 발달단계를 진단해 본다. • 프로그램의 성격 및 목적을 이해하고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해야 할 목표를 찾고 나누게 한다.
2	다섯가지 마음육구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한다. • 현실 요법의 이론과 실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 • 현실 요법의 이론과 실재를 나-친구 관계 개선에 활용한다.
3	대화걸림돌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행동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활에 적용한다. • 대화의 걸림돌을 확인하고 현재 나-친구와의 관계를 점검한다. • 문제다루기 모형의 실습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한다.
4	효율적 의사소통기법 배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행동의 개념을 이해하고 새로운 전행동을 창조한다. •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효과적인 대화기법을 훈련한다. • 신뢰깊은 나-타인간의 관계 개선을 도모한다.
5	타인에 대한 비합리적 기대 조절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각세계와 질적세계의 차이가 클 때, 좌절 신호가 생김을 이해한다. • 타인에 대한 기대를 점검함으로써, 부적절한 기대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찰을 돕는다. • 기대조절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건강한 나-타인 관계를 모색한다.
6	마음차이 인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발달수준의 특성과 개인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타인이해에 취약한 문제들에 대해 다룬다. • 타인과의 가치관 대립시 갈등관계를 개선시킨다.
7	선택과 책임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발달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과 내게 부족한 것을 다룬다. • 역할 연습을 통해 마음의 병 요소들의 예방법을 다룬다. •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
8	마음 성장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유연성을 깨닫고 죽음에 대한 절정 체험을 나누며 친구와의 관계 회복을 이루도록 한다. • 마음성장개발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결단하게 한다. • 마음성장을 위한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다.

것이다. 이와 같이 현실요법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비행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중재가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연구에서도 현실요법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10].

현실요법은 개인이 자신의 마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다[3]. 책임 있는 행동이란 자신의 마음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다른 사람의 욕구충족을 방해하지 않는 행동으로 현실요법은 현재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모든 행동이 본질적으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시도에서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더 나은 선택이나 책임 있는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현실요법은 Woo[14]가 개발한 현실요법프로그램을 대학생에 맞게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프로그램소개 및 자기소개, 다섯 가지 마음 욕구 이해하기, 대화결립돌 확인하기, 효율적 의사 소통기법 배우기, 타인에 대한 비합리적 기대 조절하기, 마음차이 인정하기, 선택과 책임의 문제, 마음 성장하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 1> 주 1회씩 총 10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에 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참가자의 참가동기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정상적인 개인의 정신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다각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정신건강을 연구 변인으로 설정한 모형으로 검증을 하였다.

2. 프로그램 개발 절차 및 방법

개발해야할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통합적 접근과 비통합적 접근, 선형적 접근과 비선형적 접근이 있다[19]. 통합적 접근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초보자에게는 어려움이 있다. 비통합적 접근은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이 조직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개발하면 되지만 현실, 상황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선형적 접근(linear approaches)은 프로그램 개발을 단선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간주하고 개발과정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그 절차를 도식화한다. 비선형적 접근(non-linear approaches)은 프로그램 개발 절차가 확립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단계나 절

차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개발자가 동시에 몇 개의 절차나 단계를 수행 할 수 있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 모형들은 각기 나름의 특징과 장점 및 한계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현실요법을 활용한 대학생 마음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모형 개발의 방향과 원칙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의 수요자나 학습자의 요구, 필요, 능력, 상황, 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는 모형이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프로그램 수요자의 상황, 흥미 등을 무시하고서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다. 특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대학생들의 발달수준, 인지·정서·행동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 개발의 효과·효율을 고려해야 한다. 일단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경제적,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면 활용가치가 떨어진다. 최소한의 경제적, 현실적 부담으로 최대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모형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의 절차가 간단하고 명료해야 하고, 세부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셋째, 프로그램 개발의 융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프로그램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그 절차와 과정이 상세하고 세분화 되어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려 주는 것과 동시에 열린 모형이어서 언제고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상황, 여건의 요구를 즉시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초보자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활용 할 수 있는 모형이어야 한다. 즉 체계적 순서에 따른 선형적 접근과 현실의 요구, 필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비선형적 접근이 적절하게 활용·통합된 모형이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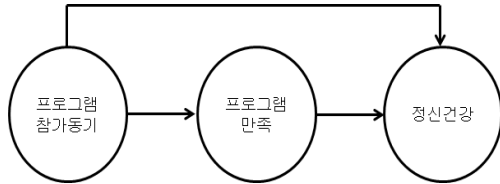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프로그램 모형 개발의 방향과 원칙에 따라 Woo[14]가 개발한 현실요법 프로그램을 대학생에 맞게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대학생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의 변인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현실요법을 활용한 대학생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가동기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정상적인 개인의 정신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다각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정신건강을 연구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 모형 및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적 명제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현실요법을 활용한 대학생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가동기 및 프로그램만족과 정신건강의 관계 모형이 적합할 것이다.

둘째, 현실요법을 활용한 대학생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가동기 및 프로그램만족과 정신건강 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2 측정도구

3.2.1 외생변수: 참가동기

본 연구에서 참가동기는 Vallerand, et al.[12]이 개발한 SMS-28(Sport Motivation Scale)과 Wessinger & Bandalos[13]의 LIM(Leisure Intrinsic Motivation)을 기초로 정용각[18]이 변안·표준화한 참가동기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내적동기 12문항, 외적동기 17문항, 무동기 5문항 등 총 34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을 하였다. 이들 설문지 분석결과 신뢰도 Cronbach's $\alpha=.797$ 이었다.

3.2.2 매개변수: 프로그램 만족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만족은 Blodgett, Hill & Tax[1], Smith, Bolton & Wagner[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을 기초로 본 연구목적과 대상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프로그램 내용 4문항, 프로그램 효과 5문항, 프로그램 방법 5문항으로 총 14문항으로 5점 척도로 측정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784$ 이었다.

3.2.3 내생변수: 정신건강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은 Derogatis[2]가 개발한 자가 보고형 다차원 증상목록 평정척도를 한양대학교 정신건강 연구소[5]에서 재 표준화한 간이정신 진단검사(SCL-90-R)를 사용하였다. SCL-90-R)은 정신증상을 9개 차원으로 나누어 각각 1개의 심리적인 증상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강박증(obsessive-compulsive) 10문항, 대인예민성(interpersonal sensitivity) 9문항, 우울(depression) 13문항, 불안(anxiety) 10문항 등, 총 32문항으로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789$ 이었다.

3.3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소재한 J대학교의 교양수업에 참여한 80명을 실험참여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주 1회 75분씩 총 10주간 현실요법을 활용한 대학생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수강신청 당시 수업이 주 1회 집단 상담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공지가 있었으며 이러한 수업진행에 동의하는 참가자에 한하여 수강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총 80명, 평균나이 23.07세, 표준편차 1.87세였으며 남자 39명, 여자 41명이 최초 실험에 참가하였다. 학년별 분포는 2학년 36명(45%), 3학년 25명(31.3%), 1학년 12명(15.0%), 4학년 7명(8.7%)순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대학생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인원수(%)
성별	남	39(48.8)
	여	41(51.2)
연령	평균(표준편차)	23.07(1.87)
학년	1학년	12(15.0)
	2학년	36(45.0)
	3학년	25(31.3)
	4학년	7(8.7)

3.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외생(독립) 및 내생(종속)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참가동기가 프로그램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생들의 프로그램 만족이 정신건강에 매개변인으로써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모형

경로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분석을 실시하였다. 입력된 자료는 SPSS WIN 17.0과 AMOS 1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 하였다.

4. 연구결과

4.1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 분석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제 변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했던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연령의 유무는 다른 변인에 비해 대체로 미미한 상관관계이거나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모형에서는 통제 변인에서 제외하여 분석하였다<표 3>.

〈표 3〉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참가동기	프로그램만족	정신건강
참가동기	1		
프로그램만족	.783	1	
정신건강	.694	.79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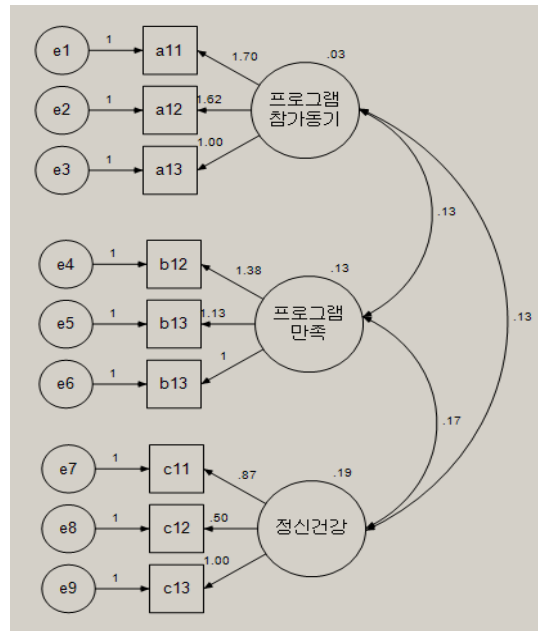
4.2 확인적 요인분석

이론적 근거에 의하여 측정구조모형이 가설적으로 구축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측정항목 간의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8]. 항목 구성의 최적상태를 도출하기 위한 각 단위별 적합도를 평가하여 <표 4>와 같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GFI .939, CFI .996, AGFI .902, RMR .053으로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결론을 얻었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X ²	DF	P	GFI	CFI	AGFI	RMR
22.53	24	.547	.939	.996	.902	.053

분석결과, 각 변인의 요인들이 해당변인을 설명하는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그림 2]와 같이 .50 이상 되는 것으로 Kline[6]의 기준을 전체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상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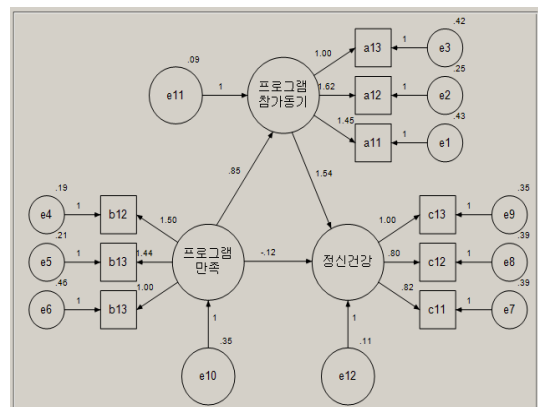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4.3. 연구 모형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 관한 가설의 적합도 검정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5>와 [그림 3]과 같다.

〈표 5〉 모형 적합성 검증 결과

X ²	DF	P	GFI	CFI	AGFI	RMR
32.676	24	.111	.916	.980	.842	.044



[그림 3] 연구모형 적합도

일반적으로 모형 적합도 평가지표로 GFI, CFI, AGFI,

RMR 등이 널리 사용된다. GFI, CFI, AGFI는 .8-9 이상 일 때, RMR는 .05 이하면 좋은 모델로 평가 된다[15]. 이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선 카이제곱(X^2) 통계량은 32.676($p=.05$)로 나타나 적합하였으며, GFI(goodness of fit index)=.916, CFI(comparative fit index)=.980, AGFI (non-normed fit index)=.842로 나타났다. 그리고 RMR의 값은 .044로 나타나 전체모형이 비교적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과 모형은 실증자료로서 무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얻었다.

4.4.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가동기 및 프로그램만족과 정신건강 간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연구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결론을 얻어 <표 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6> 가설 검증

가설	Estimate	C.R.	결과
참가동기->프로그램 만족	.850	4.936	채택
프로그램 만족->정신건강	1.544	3.302	채택
참가동기->정신건강	-.117	-2.99	기각

<표 6>과 같이 현실요법을 활용한 대학생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가동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보다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프로그램 만족을 매개로 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참가동기와 프로그램 만족의 경로계수는 .850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만족과 정신건강 간의 경로계수는 1.544로 나타났다. 하지만 참가동기와 정신건강 간의 경로계수는 -.117로 이러한 결과를 Kline(1998)의 기준으로 볼 때, 참가동기는 프로그램 만족에 중간정도의 영향력 미치며, 프로그램 만족은 정신건강에 높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가동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값이 -.117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실요법을 활용한 대학생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가동기와 프로그램만족, 정신건강 간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보면 현실요법을 활용한 대학생 마음치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정도로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충분히 이해하고 만족해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현실요법을 활용한 대학생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참가동기와 프로그램 만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는 대학생 80명이었으며 하루 75분씩 총 10주 동안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현실요법을 활용한 대학생 마음치유 프로그램의 참가동기가 정신건강 향상에 미치는 직접효과보다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정도를 매개로 하였을 때 정신건강 향상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히 참가를 유도하는 동기부여로 만족감을 줄 수 없고,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정신건강에 느끼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가 현실요법을 활용한 대학생 마음치유 프로그램과 만족, 정신건강에 관한 구조적 관계모형을 제시해주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실요법을 활용한 대학생 마음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양한 대상자에게 적용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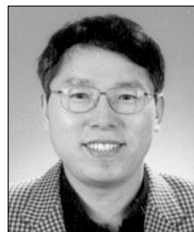
둘째, 본 연구의 변인 외에 대학생들의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삶의 질 또는 삶의 만족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즉 다양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도출해봄으로써 대학생 마음치유 프로그램 보급·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Blodgett, J. G., Hill, D. J. & Tax, S. S.(1997). The effects of Distributive, Procedural, Interactional Justice on Post-complaint Behavior. Journal of Retailing, 73(2), 185-210.
 [2] Derogatis, L. R. (1983). SCL-90-R: Administration, scoring & procedures manual-II for the R(evised) version and other instruments of the psychopathology rating scale series. Towson, MD: Clinic Psychometric Research.
 [3] Glasser, W. (1965). Reality Therapy : An approach to Psychiatry. New York: Harper and Law.

- [4] Hwang, M. G. (1996). The effects of group reality therapy program on locus of control and motivation of achievement of middle school girls.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gang University.
- [5] Kim, K. I., Kim, J. H., & Won, H. T. (1984). Symptom checklist procedure manual. Seoul: Chungang Jeoksung Publishing.
- [6] Kline, R. B.(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 The Guilford Press.
- [7] Park, K. H. (1991). The effect of reality therapeutic model on self concept and locus of control of juvenile delinquents.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ngang University.
- [8] Pedhazur, F. J., & Schmelkin, L. P. Measurement, Desing, and Analysis: An Intergrated Approach, Earlbaum, Hillsdale, NJ, 1991.
- [9] Ringeisen, H., Casanueva, C.E., Urato, M. & Stambaugh, L.F. (2009). Mental health service use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for adolescents reported to the Child Welfare System. *Psychiatric Services*, 60, 1084-1091.
- [10] Slowick, C. A., Omizo, M. M., & Hamnett, V. L. (1984). The effects of reality therapy process on locus of control and self-concepts among Mexican-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Reality Therapy*, 3(2), 1-9.
- [11] Smith, A. K, Bolton, R. N. & Wagner, J.(1999). A model of customer satisfaction with service encounters involving failure and recovery.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6(Aug.), 356-372.
- [12] Vallerand, R. j., L. G., Blais, M. R., Briere, N. M., Senecal, C. & Vallieres, E.F.(1992). The academic motivation scale : A measure of intrinsic and a motivation in education scale : A measure of intrinsic, extrinsic and a motivation in educa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2(4), 1003-1017.
- [13] Wessinger, E. & Bandalos D. L.(1995).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scale to measure intrinsic motivation in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7(4), 379-400.
- [14] Woo, A. R. (1994). Development study of group social work program using reality therapy. D 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15] 김계수(2010). AMOS 18.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한 나라아카데미
- [16] 이혜순(2010).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 및 가족기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제16(4) 권. pp297-303
- [17] 장성화, 진석연(2009). 기독교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사회적 지지 및 정신건강 비교.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 17권. pp179-202.
- [18] 정용각(1997). 여가운동 참여자의 스포츠 참여동기, 각성추구, 정서요인이 스포츠 몰입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서울 : 교육과학사, 20015), p. 54-56.
- [20] 메디컬투데이, (2011-06-02)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57512>

하 태 현



- 1982년 2월 : 인하대학교 경영학사
- 1991년 5월 : The City University (London) 정보과학 석사
- 1994년 5월 University of Wales Swansea (UK) 경영정보학 박사
- 1977년 2월 -1987년 3월 : 한국외환은행 근무
- 2001년 3월 - 2003년 2월 : 방문교수. University of Wales Swansea(영국)
- 2008년 8월 - 2009년 2월 : 교환교수. Miyazaki International College(일본)
- 1997년 3월 -현재 우석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전자상거래, 데이터베이스, 컴퓨터교육, e-Learning, 정보관리
- E-Mail : taiha04@daum.net

백 현 기



- 2006년 : 전북대학교(교육학박사)
- 현재 :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HK교수
- 관심분야 : 마음인문학, 온톨로지, 지식지도, 전자문화지도, 스마트러닝
- E-mail : mind946@gmail.com